

“공급망·디지털·탈탄소 연대” 한국 ‘IPEF 동참’ 선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윤석열 대통령, 미국 주도 IPEF 첫 정상회의의 23일 참석… “연대와 협력” 역설
IPEF 참여 13개국, 선언 통해 ‘자유·개방·공정·포용·책임’ 강조
“한국, 자유민주·시장경제 기반으로 빠른 성장… 경험 나누고 협력할 것”
“IPEF 참여” 공식 선언… 출범국으로 참여해 ‘롤 메이커 역할’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첫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참’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여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IPEF 첫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13개국 정상 가운데 다섯 번째 순서로 발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IPEF 참여국의 연대와 한국의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

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AI·데이터·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자신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이날 일본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미국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할 IPEF의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번 정상회의에는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이 대리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이날 회의에서 ‘변영을 위한 IPEF 선언’을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달성의 잠재력을 지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시에 상호 연관성과 회복력이 있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근로자와 여성, 중소기업,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경제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에너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시스템을 전환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으로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 참여국들은 또한 “우리는, 기술 지원과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허용해 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유형의 이익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 파트너들과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며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의 필라(pillar) 하의 세부 의제에 관해 협상과 공동 논의를 향후 지속하기로 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통상·안보 협력체로, 여내 국가들이 디지털경제, 핵심 부품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

다. 우리나라는 IPEF 참여를 통해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AI·양자컴퓨터·청정에너지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또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의 역할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손해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한미 정상회담… 경제계, 일제히 환영

한미 정상회담 직후 경제계, “강력지지” 발표
경제계, ‘경제·기술·성장의 동맹’으로 평가

경제계가 21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제히 경제, 기술, 성장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만남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만찬에 재계 수장들은 총출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정기선 HD 현대 사장, 방산업체 풍산의 류진 회장까지 참석했다.

경제 6단체장도 함께했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GS 명예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CJ그룹 회장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의 경기 팹팩공장을 함께 찾아 경제안보 동맹 의지를 확고히 하는 모습도 보였다.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한상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



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총연합회도 IPEF를 반겼다. 경총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통해 양국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을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동맹까지 넓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번 IPEF 참여가 상호 경제교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이재용, 바이든에 “반도체 혁신, 전 세계 헌신 있어 가능”

양국 정상 팹팩캠퍼스 22분간 시찰이 부회장, 직접 안내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팹팩 캠퍼스 소개하게 돼 영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팹팩캠퍼스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오후 양국 정상을 만나기에 앞서 삼성전자 팹팩캠퍼스 P2 사무동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5시 54분 사무동에 도착한 윤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후 대기실로 이동해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자 이 부회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P1, P3 공장 안내를 담당했다.

한미 정상이 함께 삼성 공장을 찾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후 이 부회장

은 삼성전자 팹팩캠퍼스 공동연설장에서 “오늘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인 이곳 팹팩 캠퍼스에 오셔서 감사하다”며 “양국 대통령을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라며 “저희는 이같은 관계를 존중하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모든 것의 엔진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미국 한국에 계신 모든 삼성팀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윤석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공장을 안내한데 이어 양국 대통령의 공동 연설에 앞서 영어로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 재료 ‘웨이퍼’에 서명한 것을 두고 향후 양국의 반도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해석이 나왔다.

조재범 기자 jbccho@newdailybiz.co.kr

#media
#Strategy
#AI
#creativity
#SDGs
#global
#Entertainment
#SpikesAsia
#brand
#CannesLions
#Creative Data

크리에이티비티 & 마케팅 뉴스
브랜드브리프

www.brandbrief.co.kr